

### 불전언어, 유식 등 조계종 교수아사리 선발

조계종의 2014년 신규 교육아사리 7명의 스님이 선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014년 교육아사리에 여연, 현진, 부호(이상 비구), 선일, 현견, 현은, 자목 스님(이상 비구니) 등 7명의 스님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으로 조계종 교육아사리는 총 34명이 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교수아사리 모집에는 비구 스님 5명, 비구니 스님 5명 등 총 10명이 지원했으며, 교육아사리 심사위원회와 교육원 회의를 거쳐 7명의 스님을 선발해 위촉한 것이다.

비구 여연 스님은 유식학 관련 연구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진 스님은 중앙승가대 역경학과를 졸업하고 인도 등지에서 10여 년간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를 수학했다. 부호 스님은 동국대에서 한국불교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비구니 선일 스님은 인도 뭄배대학교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각각 철학 및 빠알리 삼장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견 스님은 중국 북경대학에서 선불교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은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에서 언어(禪語)와 관련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자목 스님은 스리랑카 켈라니아 대학에서 초기불교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종일 기자

## 스님들 생생 법문문자 ‘인기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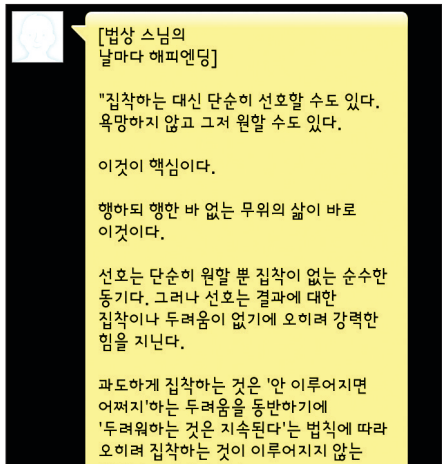
### BBS, 오늘의 부처님말씀 문자서비스 시즌2

####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 등 매일 아침 문자서비스로

“남에게 주었다고 해서 복이 없어지고 덕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었으니가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려고 해서만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근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율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정우 스님-

매일 아침 전해지는 BBS불교방송(사장 이재원) ‘오늘의 부처님말씀 문자서비스(이하 부처님 말씀)’의 내용이다. 불교방송은 신년 벽두 ‘부처님말씀’ 시즌2로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불교방송은 “새롭게 문자서비스 시즌2를 개발한 이유는 현대인들에게 불교가 더욱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1천년 전 내지 2천년 전의 언어를 현대어로 번역한 시즌1과 달리 시즌2는 현대를 함께 호흡하는 동시대 스님들의



불교방송 ‘오늘의 부처님말씀 문자서비스’ 중 법상 스님의 법문. 동시대 스님들의 생생한 법문 문자서비스에 대한 인기가 높다.

목소리를 담았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여기에는 조계종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과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을 비롯해 인터넷 카페 목탁소리를 운영하는 법상 스님, 불교 심리학 전문가인 서광 스님 등 스님과 불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시즌1의 부처님말씀보다

그 인기가 상당하다. 시즌2는 현대를 함께 호흡하는 동시대 스님들의 언어로 대중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는데 시즌1보다 신청자들이 많아 그 반응이 좋다. 이에 시즌2 참여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한다.

불교방송 오늘의 부처님말씀 문자서비스는 지난 2012년 3월 ‘부처님 말씀으로 하루를 여세요. 삶이 편안하고 향기로워집니다’란 캐치프레이즈로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꾸준한 인기를 끌며 매일 2만 2천여명에게 전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영문서비스까지 개발해 영어에 친숙한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불교방송은 “부처님말씀 문자서비스는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학교 동문, 직장 동료 등에게 법보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교방송은 전했다. 새로운 경전읽기 문화, 사경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뉴미디어를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퍼는 사명을 이루는데 많은 분들의 동참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동참을 당부했다.

정혜승 기자 bwjns@hyunbul.com

## 팔만대장경 바꿔치기 ‘사실무근’

문화재청, 1월 24일 해명...연구자 측정 오류 밝혀져

지난해 12월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된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의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1월 24일 “1937년에 제작된 대장경판 17판 중 12판이 각각 너비가 다르고 경판 색깔이 희고 깨끗해 경판이 바꿔치기 됐다”는 지난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연구자의 측정 오류로 확인됐다”고 고쳤다.

경판의 각각 너비 차이는 각각의 여백부분 포함 여부와 경판의 서로 다른 면(앞·뒤)을 측정할 크기를 비교해 발생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서수생 박사가 1977년 대장경을 실측한 논문과 최근의 실측치를 비교한 결과, 각판의 치수가 0.5cm 이상 차이는 12판의 결과 중 1cm미만의 오차는 단순한 측정 상의 허용오차 범위 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1cm 이상의 오차가 나는 6판의 경판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6판 중 2판의 경판이 서수생 박사 논문에서 각각의 여백부분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중 3판의 경판 크기 차이는 양면(앞·뒤)을 혼동해 2012년 용역 시에

1977년 논문에서 측정할 것과 다른 면을 측정했으며, 나머지 1판의 경판은 1937년 제작 경판이 아닌 고려시대 제작 경판과 치수 자료를 비교해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은 “1937년 경판이 비교적 희고 깨끗한 것은 목재 분해적 특성으로 장경판전과 같은 보존환경에서는 원래 색깔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1969년 서수생 박사의 논문에서도 ‘을묘(乙卯, 1915) 판은 붉은색에서 조충(丁丑, 1937) 판은 희므로 일견 구별하기 쉽다’는 언급이 있어 목재의 색깔이 희다는 이유로 최근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체계적인 대장경판의 보존관리를 위해 올해 생물학적 피해 등에 대한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자원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인 보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지, 목재, 금속, 보존과학 분야 등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4차에 걸쳐 개최했다. 신종일 기자

### “표충사 토지 필히 환수”

통도사, 대책회의서 천명

통도사가 불법 매각된 표충사 토지 환수를 재차 결의하고 나섰다.

‘표충사 불법 토지매각 대책위원회’ (이하 표충사대책위)는 27일 오후 2시 주지 집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매각된 표충사 토지 환수 △사무장 김보씨의 자수에 따른 대책 강구 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통도사는 2012년 8월 당시 표충사 주지 재경스님 등이 표충사 토지 불법 매각과 횡령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표충사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재경스님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불법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사건 발생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경스님은 사건 발생 1년4개월여만인 지난해 12월 9일 경찰에 자수해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재경스님과 함께 공모한 사무장 김보씨도 지난해 23일 경찰에 자수, 구속수감됐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국종특별교구장은 1월 25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갑오년 첫 수계법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교구장 정우 스님이 연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

## 군중교구, 새해 첫 수계식

1월 25일 육군훈련소사... 3200여 불자장병 탄생

“오계를 받은 저희들은 보리심을 발하여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화하게 하였습니다.”

갑오년 설날을 앞두고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새롭게 불자로 거듭난 장병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절 병사들에게 계를 내리고 단주를 채워주며 열심히 군생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부처님 전에 서원한 오계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잊지 말고 지켜주시길 유언하게 잘 쓰면서 생활하기 바란다”며 건강한 군생활을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공주 동학사와 불교여미회가 후원했다.

이와 함께 군중교구는 서울 구룡사와 일산 여래사의 후원 하에 27일 30사단 신병교육대, 28일 26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총 2000명 분의 자장면과 과일 점심공양을 보시했다.

노덕환 기자

## 조선 승군 등 호국불교 학술 논문 망라

불교사회학, 관련 논문집 제2권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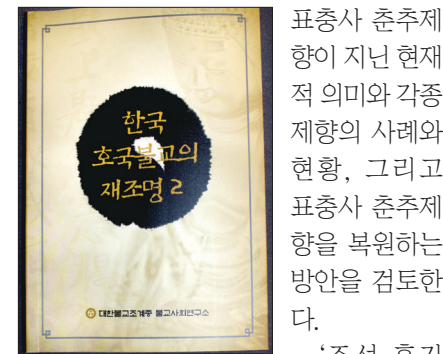
서산대제 국가제향의 당위성부터 조선시대 승군까지 호국불교의 연구 성과를 망라한 논문집이 발간됐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2013년도 호국불교의 연구 성과를 모은 논문집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2》를 발간했다. 이번 논문집은 불교사회연구소에서 2013년도에 개최한 두 차례의 학술세미나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으로 두 번째 호국불교 연구 논문집이다.

이번 논문집에는 ‘서산대제의 국가제향 복원’과 ‘조선 후기 승군과 승역 제도’를 집중 검토하는 총 6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서산대제 국가제향 복원’ 관련 논문인 ‘조선시대 전란사에서 의승군의 위상과 역할(이장희 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은 의승군 봉기 주역으로서의 서산대사의 역할과 의승군의 참전과 전과, 의승군에 대한 예우와 호국불교 승계의 측면에서 본 의승군의 성격에 대해 총론적으로 설명한다.

‘표충사 춘추제향 실행의 역사와 의의’(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는 조선시대의 국가제향, 서산대사의 활동과 국가제향 봉행의 의의, 표충사 춘추제향의 계승과 실제에 관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표충사 춘추제향의 현재적 의미와 복원 방안’(최인선 순천대 사학과 교수)는



표충사 춘추제향이 지난 현재적 의미와 각종 제향의 사례와 현황, 그리고 표충사 춘추제향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선 후기 승군과 승역의 활동’을 집중 검토한 논문인 ‘조선 후기 승군제도의 불교사적 의의’(고영성 동국대 교수)는 조선 후기 불교의 사상적·종교적·사회적 역할과 조선 후기 불교정책, 조선 후기 승군 제도의 정착과 확대, 승군제도가 불교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조선 후기 상층의 승군 부역노동’(윤용출 부산대 교수)는 17세기 이후 승역의 추이와 원인, 부역(壯役)의 실태에 대해 분석하는 논문이다.

‘조선 후기의 의승방번전(義僧防番錢)’의 정수와 승군(오경후 동국대 HK교수)은 조선 후기 불교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조선 후기 남·북한산승 의승입번전(義僧入番制)의 실시와 의승방번전의 정수에 대하여 검토한다. 신종일 기자

# 콘크리트 법당!

정밀하고도 엄격한 공정을 거쳐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홍내는 낼 수 있어도 금(金)과 은(은)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공포 및 자재는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 시공됩니다.**

- 특히 제10-0572820 (사찰의 조립식 공포의 설치방법)
- 특히 제10-0572821 (사찰의 조립식 공포)
- 본 제품은 특허제품이므로 유사하게 만들어 시공하게 되면 특허법 제225조 1항에 저촉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 화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스님께서 직접(직영) 완공하실 수 있도록 자재 및 기술지원 해 드립니다.

(1) 기초

(2) 기둥, 창방 및 평방

(3) 주두 및 공포 조립

(4) 불벽 및 도리

(5) 추녀 및 사레

(6) 귀포작업

(7) 서가래 및 부연

(8) 지붕 합작

(9) 골조

**불사완공**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57-15 (4층)  
전 화 : 010-5530-6814, 02)494-4890  
협력회사 : 신아건설, 신동방건축설계

## 현대불교

### 사찰 목조문화재 ‘썩고 있다’

백대 기고 뒤를림 현상 전국 확산  
“방음 방충 작업 오히려 훼손” 여론

문화재청 ‘원인분석 의뢰’... 문화재청이 원인과 해충으로부터 방음 방충 작업을 실시하는 ‘방음 방충 작업 오히려 훼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원인과 해충으로부터 방음 방충 작업을 실시하는 ‘방음 방충 작업 오히려 훼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원인과 해충으로부터 방음 방충 작업을 실시하는 ‘방음 방충 작업 오히려 훼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외규장각... 서명운동... ※ 취급품목 : 대웅전, 요사채, 일주문, 산신각, 종각, 누각